2800억대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좌초

지가 상승·환경영향평가 발목 … 설계비 등 20억 날려

전남개발공사 신뢰 추락·주민 반발… 지역사회 동요

28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좌초했다. 사업자인 전남개발공사가 환경보존 문제를 간과한 채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국민의당·여수6)에 따르면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100만㎡ 면적의 부지에 사업비 2866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죽림1지구 도시개발이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수지역 지가가 크게 상승한데다, 환경당국이 개발지구 내 산지(야산) 개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지구 내 2만평 규모의 야산을 허물어 아파트 건립 부지로 사용하고, 이 곳에서 나온 토석으로 주변 저지대를 매립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원형 보존' 의견을 내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개발 호재로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가 15%가량, 시가로는 3~4배 폭등해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사업비는 당초보다 1200억원(41.8%)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공기업법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재검토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앞서 양지문 사장은 지난 6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가 상승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원형산지 보존 문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사업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사업이 좌초하면 여수 지역사회는 크게 동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소유주의 반발, 행정 신뢰 추락,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설계비 등 2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달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내년 초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서일용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우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여수 지역사회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역점 시책

'숲속의 전남 만들기' 탄력

내년 나무심기 예산 677억 최다

전남도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4년차인 내년 나무 심기 예산 677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보다 4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국비 346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림청 나무 심기 예산의 22%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주요 사업별 신규 예산은 ▲광양 백계산 동백 특화림(50ha) 10억원 ▲영암 월출산 산책로 내 기찬묏길 향기 숲(40ha) 8억원 ▲화순 청풍면 밀원 숲 청풍특화림(15ha) 3억원 ▲보성 호남정맥 산철쭉 특화림(20ha) 4억원 등이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대표사업 하나인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은 올해 5개 시·군에서 진도, 해남, 보성, 완도 등 1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산강 경관숲'은 13억원을 들여 ▲무안 수변림 ▲담양 황금 마을숲 ▲장성 요월정 누정숲 등 3개소를 조성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관 숲과 도민 소득을 창출하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는 전남도 브랜드 시책으로 2024년까지 매년 1000만 그루씩 모두 1억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3073만 그루 나무와 1520만 그루 꽃나무를 심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

7일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광주광역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개회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문화예술 관람률 52.7% 전국 꼴찌

문화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4년간 70% 감소

전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도의 문화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4년 사이에 7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도민 문화예술 관람률은 52.7%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78.3%보다 무려 25.6%포인트 낮은 수치다.

대도시와 달리 전남지역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떨어뜨린 것이 원인이라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 214억원이었던 문화기반시설조성 예산을 올해 64억원만 편성, 4년새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이 1096억원에서 990억원으로 9.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외면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전남관광 5000만 시대라는 숫자에 치우쳐 정작 도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연령대, 소득계층 등을 고려해 작은 영화관 건립, 찾아가는 영화관 등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난항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정치권 이해관계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치구(區)간 인구 불균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급감한 동구와는 달리 광산구와 북구의 인구가 크게 늘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자치구의원선거획정위원회를 열고 인구와 동(洞)수 비율, 중선거구제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4년 마다 열리며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획정위원회는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을 인구 30%, 동수 70% 비율로 결정한 현행 기준을 그대로 할 것인지 인구 배율을 높일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인구 30%와 동수 70%를 적용하게 되면 북구 아선거구는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4만1357명에 달해 최대 4대 1의 허용인구(3만8064명)를 넘게 된다.

또 지난 9월 현재 인구 9만6258명인 동구 3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8명(비례 1명 포함)을 뽑고 있는데 사람이 더 많은 광산구 라선거구(12만7299명)는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등 의원 1인당 인구수 차이가 큰 점 등도 이번 획정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다.

특히 북구 마선거구에 포함돼 있는 임동은 같은 선거구인 오치동·매곡동·용봉동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일종의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데도 한 선거구에 묶였다. 인구 불균형 속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생활권과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형적인 선거구인 '게리맨더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획정위원회는 몇차례 회의를 연 뒤 정당, 구청장, 구의회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20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계속된 가뭄에… 전남도 평균 저수율 57% 불과

강수량 평년의 58% 그쳐

가뭄대비 용수 확보 나서

전남도가 최근 계속된 가뭄에 따라 저수지 물 채우기 등 가뭄 대비 용수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지역 평균 강수량은 740mm로 평년(1266㎜)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68%)보다 11% 포인트가 낮다.

광역 상수도 역시 수어댐(66%)을 제외하고는 주암댐 34.5%, 장흥댐 27.8%, 평림댐 37.5%로 모두 평년 수준에 비해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올해 영농급수가 완료돼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강수량이 적을 경우 저수율이 낮은 나주, 보성, 강진, 해남, 영암 등은 내년 벼 옮겨심기나 급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용수도 광역 상수도 공급 지역은 내년 6월까지 정상 급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도와 진도, 신안군 일부 섬은 이미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농기 전 배수로, 관정 등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 저수지를 채울 계획이다.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완도 보길도 부황제 관정을 개발하고 하천수를 모아 1일 1000t의 물을 끌어 올리고 있다. 완도 넙도에서는 해수 담수화, 진도 대마도에서는 관정 개발, 영광 복룡제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물을 양수할 수 있는 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진도의 해남 금호호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계 연결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6403t 매입

광주시는 산물벼 수매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2월11일까지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를 매입한다.

이번 건조벼 매입 물량은 공공비축미곡 2803t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곡 3600t을 포함한 총 6403t, 16만 87포대(40kg)로 지난해보다 지난해보다 58t 증가했다.

매입 대상은 새누리와 미품 등 2개 품종이며, 톤백(800kg) 또는 소형포대(40kg)를 이용해 건조벼 상태로 출하해 농협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한다.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매입 가격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